

## 스페인어 연음 학습에 관한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김 원 필  
단독/조선대학교

Kim, Won-Pil (2011), Un estudio teórico y práctico sobre el enlace y la sinalefa en español para su enseñanza en el aula.

**Abstract** Para los estudiantes del español como lengua extranjera (E/LE) el enlace y la sinalefa son una fuente de dificultades. No es de extrañar de este modo que constantemente los profesores reciban a sus alumnos para intentar explicarles el por qué de la ininteligibilidad en el mensaje oral de los nativos. Y es que la percepción que tienen los estudiantes al escuchar ese mensaje es descrita como un fluido continuo de palabras, que de repente brotan y se entrelazan ininterrumpidamente. Por esta razón el enlace y la sinalefa son fenómenos indispensables para la didáctica de la pronunciación española y la activación de estrategias destinadas a mejorar la comprensión oral en los estudiante de E/LE. El presente trabajo realiza un estudio teórico sobre el fenómeno del enlace y de la sinalefa en español a la vez que propone algunas recomendaciones prácticas para su aplicación en la enseñanza de E/LE. Este estudio señala las características que determinan qué vocales sucesivas pueden pronunciarse juntas y cómo se realizan en el plano fonético.

**Key words** enlace, sinalefa, sirrema, enseñanza del español  
연접, 모음연쇄, 말마디, 스페인어 교육

---

\* 이 논문은 2008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I. 서론

구어체에서 어떤 어구나 문장 내 단어들이 개별적으로 발음되기 보다는 그 전후의 음성 맥락에 따라 달리 발음되는 경우가 많다. 즉 이웃소리들의 융합이나 동화 또는 연음에 의해 변이음으로 발음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어에서 “일찍 일어납니다”는 [일찍기러남니다]로, 영어에서 “Give me”나 “Let me”는 [gímmil, [lémmil]로 발음될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스페인어에서 “Es un animal”은 [é-sú-na-ni-máll], “en general”은 [en-xe-ne-ráll]로 발음되는데, 이는 앞 단어의 끝 자음은 뒤따르는 단어의 첫 모음과 융합하여 음절경계가 변경된 경우, 그리고 앞단어의 끝 자음이 뒤따르는 단어의 첫 자음과 동화하여 조음위치(연구개음)가 같은 변이음으로 변화되는 경우이다.

이와 같이 발화시에 일어나는 연음상의 여러 가지 음운 변화는 의미전달의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말하기뿐만 아니라 듣기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우리나라에서도 제6차 교육과정 이후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위해 발음지도에 강세나 억양과 더불어 연음에 대한 지도를 행하도록 하고 있다. 즉, 연음은 언어의 실제 실현형으로서 음과 음의 부드러운 연결, 리듬 형성, 말하기, 듣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따라서 음절 중심으로 쓰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학생들은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연음에 있어 스페인어 학습자들이 겪는 문제들을 분석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찾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우선 학습자들의 발음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필자가 강의하고 있는 중급스페인어문법 과목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몇 가지 짧은 문장을 제시한 후, 학생들이 스스로 녹취한 파일들을 청각적 방법으로 일일이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 얻은 오류의 정도와 내용을 바탕으로 연음 학습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이유와 더불어 그 해결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 II. 학생들의 연음 오류 실태 조사 및 분석

### 1. 현장 조사 및 분석 방법

학생들의 연음 실태 조사와 분석은 필자가 담당하고 있는 2학년 중급스페인어문법 과목의 수강생 25명 중 조사에 응한 20명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문장들을 교재에서 발췌하여 제시한 후, 학생들이 각자 읽고 녹음해온 파일을 필자가 청각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문장이 길지 않고 내용 또한 쉬우며 문법적 측면에서도 별 어려운 사항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부담 없이 읽을 수 있고, 따라서 보다 자연스러운 발음을 조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 과목은 1학년의 초급스페인어문법의 연계 과목으로써 비교적 고급문법을 다루는데 읽기는 물론 발음 및 듣기 훈련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비교적 저학년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스페인어 구사가 원활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이미 초급과정을 마쳤고 더구나 그중에서도 선별된 학생들로서 구성된 수업이기 때문에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본다.

Linda<sup>1</sup> es la<sup>2</sup> amiga de Juan. A veces ellos<sup>3</sup> estudian<sup>4</sup> juntos. Juan<sup>5</sup> es muy guapo<sup>6</sup> y alto. Linda es muy<sup>7</sup> inteligente y sobresaliente pero es muy gorda y baja. Linda<sup>8</sup> ama a Juan pero él no la ama a ella.

위의 경우 문장이 다섯 개가 있는데, 그 다섯 개 문장을 통틀어 그 안에 들어 있는 단어 경계는 모두 38개이다. 그중 발음상 유의할만한 연음이 형성된 부분은 총 열여섯 개로서 약 42%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 열여섯 군데 중에서 반복된 현상은 제외하고 나머지 8개에 한하여 음운 현상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 2. 분석 결과

#### 1) 1의 분석 (이중모음 연쇄)

두 모음(a-é)이 연결한 sinalefa현상<sup>1)</sup>으로서, 앞 모음과 뒷 모음이 모두 강

1) sinalefa란 두 개 이상 연쇄된 모음들이 서로 융합하여 마치 한 음절처럼 발음되는

모음이 되 개구도 면에서는 하강의 구조를 띠고 있으며 또한 강세 면에서는 상승의 구조를 띠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의 발음은 [lindaés]로 된다. 그러나 학생들의 발음 실태를 살펴보면 대부분(70%)이 [linda-és]로 발음하고 있으며, 일부(30%)만이 연음을 구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나마 이들과 저도 모두 [lindaes]로 발음함으로써, 비록 연음은 이루어졌으나 강세가 원활히 구사되지 않는 것을 볼 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연습을 시킬 필요가 있다.<sup>2)</sup>

모음 a-e의 연결구조는 스페인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특히 maestro처럼 한 단어 내에서 한 음절로 발음하는 현상(sinéresis)을 학생들이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현상을 단어의 경계를 넘어 적용하면서 훈련시킨다면 자연스런 연음 구사에는 별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한다.

연음이란 음악에서 이음줄을 연주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드럽게 이어 발음함으로써, 격식에 매이지 않는(informal) 일상의 구어체 대화에서 보다 연하고 빠르게 발음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서로 다른 음절이 통합되어 한 음절로 되는 과정인 것이다. 따라서 이처럼 강모음 두 개가 연결된 경우라 하더라도 음절 경계를 초월하여 이어 읽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 왜 뒤 모음에 강세가 오는지를 학생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짙다. 그것은 아직도 단어 강세의 규칙만을 알 뿐 문장 강세의 규칙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Linda라는 주어에 es라는 동사가 직접 결합된 바, 동사는 항상 강세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비록

일종의 연음 현상인데, 불어에서처럼 정관사와 명사의 이웃 모음 중 하나가 생략되거나(le ami>l' ami), 아니면 두 모음이 하나로 통합되는 경우가 그것이다(la amistad>llamistad]). 이와 비슷한 현상으로서 sinéresis란 주로 단어 내에서 두 모음이 한 음절로 통합되는 경우를 말한다(예. maestro; ma-es-tro> maes-tro).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단어들 간에 모음과 모음이 연결되는 경우만을 한정하여 다루기보다는 자음과 모음이 연결되는 경우도 포함하여 다루고 있다. 이처럼 자음, 모음을 망라하고 어떤 요소들이 서로 융합하는 경우를 포괄하여 필자는 enlace라고 명명하였다.

2) ser 동사는 cópula로서 반드시 강세를 동반한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ser 동사는 강세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없기 때문에, 초보 학생들에게 굳이 그토록 상세히 구분하여 설명할 필요 없이 동사는 기본적으로 강세가 부여되는 주요 성분이라는 점을 우선적으로 인식시키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라고 판단한다. 게다가 실제로 Antonio Quilis(1975)를 살펴보면 예문 중에서 ser 동사에 강세 부호를 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이 한 음절로만 이루어져서 단어 차원에서는 상대적 강세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을지라도, 문장 차원에서는 주요 내용어로 기능하면서 강세가 동반된다는 사실을 명심시킬 필요가 있다.

## 2) 2의 분석 (동일 모음의 축약)

두 모음(a-a)이 연쇄되어 모음 하나로(la) 축약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llamíga). 이 경우는 1의 경우와 달리 같은 모음이 이웃하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이어읽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 융합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융합은 다른 말로 하면 혼합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서로 다른 모음이라면 그저 함께 이어주는 것으로써 혼합이 이루어지지만 만일 서로 같은 모음이라면 그것들을 용해하여 하나로 섞이게 된다. 이런 원리에서 이 두 모음은 결과적으로 한 모음으로 축약된 것이다. 더구나 이 두 모음은 서로 같은 모음일 뿐만 아니라 각각이 무강세 모음으로써 긴장성을 동반하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굳이 나누어 읽는 수고를 감당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학생들은 아직 이런 원리에 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학생들 모두 (100%)가 la amiga를 [la-a-mí-ga]처럼 띄어 읽고 있는데, 심지어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25%)이 [lá-a-mí-ga]처럼 관사에 강세를 주고 읽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이는 스페인어 학습자들이 아직도 개개의 단어별로 읽는 현상이 지배적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정관사는 일반적으로 강세를 가질 수가 없음은 물론이다. 그런데도 학생들이 거기에 강세를 주는 것은 관사와 명사의 밀접한 통사관계를 망각한 채 그 사이에 휴지(pausa)를 두기 때문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휴지가 형성되는 마디는 상승조의 억양을 띠게 된다. 일례로 “En la clase hay mesas, sillas y un mapa.”에서 보는 것처럼 나열된 명사들은 마지막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올려 읽는데, 이는 언어의 보편적인 음운현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학생들은 평소 습관대로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특별히 통사적 관계를 환기시키는 동시에 한 단어처럼 연습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연습시킬 필요가 있다.

### 3) 3의 분석 (자음과 모음의 연결)

자음과 모음이 연결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앞에 놓인 주어 *ellos*가 뒤의 동사 *estudian*과 연결되면서 앞 단어의 음절말 자음(/s/)이 뒤 단어의 음절 초 모음(/e/)과 융합되는데, 이로써 음절경계가 변경되는 것이다([é-ʎo-ses-tú-djan]). 이런 현상은 매우 빈번한 것으로서 평소 약간의 주의와 훈련만 기울인다면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실제로 주어와 동사 사이에 휴지를 둔 4명(20%)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연음이 실현되었다.<sup>3)</sup>

그러나 이 경우에 유의해야 할 점은 음절경계가 재설정됨으로써 앞 단어 끝음절의 핵을 이루는 모음의 음가가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los amigos*의 경우 각각 별개로 발음한다면 [los amígos]처럼 *los*의 모음 /o/가 보다 열린 소리인 변이음 [i]으로 될 것이나,<sup>4)</sup> 이 두 단어가 연음되면 [lo-samí-gos]처럼 그 모음 /o/가 본래의 음가인 보다 닫힌 소리 [o]로 변화된다. 따라서 만일 “*Los amigos están ...*”으로 확대 연결된다면 그 발음은 [lo-samí-go-ses-tán]처럼 명사 *amigos*의 모음 /o/가 또한 열린 소리에서 닫힌 소리로 변화돼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각 단어 별개의 발음 [é-ʎos]와 [es-tú-djan]이 연음되면 [é-ʎo-ses-tú-djan]으로 발음된다.

이와 같이 어떤 음소이든 음성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이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교수자나 학습자들이 그런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과 지식을 가지고 학습에 임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많지 않은 것 같다. 연음이 음성구문론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음성 환경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3) 주어와 동사는 반드시 한 어군을 형성하는 것만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이에 *pausa*가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 제시된 바와 같은 짧은 문장에서는 주어와 동사 사이에 굳이 *pausa*를 둘 필요가 없을 것이다.

4) 스페인어 음성학에서는 모음 /e/와 /o/가 폐음절을 이루는 경우, 즉 그 뒤에 어떤 자음이 붙어 음절이 마감되는 경우, 이 두 모음은 원칙적으로 열린 소리로 발음되는 규칙이 있다. 단, 모음 /o/는 그 어떤 자음이 결합되든 상관없이 열린 소리로 변이되지만, 모음 /e/의 경우는 자음 /d, m, n, s, θ / 등의 자음을 제외한 다른 자음이 결합될 때만 열린 소리로 변이된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 4) 4의 분석 (자음 간 연접 및 동화)

앞 단어 *estudian*의 어말자음 /n/과 뒤따른 보어 *juntos*의 어두자음 /x/이 이어져 [-ŋx-]로 융합됨을 보여주고 있다(*lestúdjɔŋxúntos*). 이와 같은 자음 간 연접의 경우에는 특히 동화현상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는 역행동화로 앞 자음 /n/이 연구개음화하여 [ŋ]이라는 변이음으로 되었는데, 이와 같이 조음위치가 같은 소리로 되는 것을 우리는 위치동화<sup>5)</sup>라고 부른다.

학생들은 아직 동화현상에 익숙지 않음이 명백한 바, 본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 중 50%가 연음을 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령 연음을 구사했다 하더라도 연구개음 동화를 실현한 학생은 아무도 없었다. 따라서 평소 학습자들에게 동화의 원리를 이해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자음동화의 원리는 굳이 스페인어에 한정하여 주지시킬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언어의 보편적 현상이기에 우리말 안에서도 쉽게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양 언어가 똑같은 동화 규칙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스페인어와 한국어의 동화 규칙은 서로 부합하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sup>6)</sup> 엄연히 구별해야 할뿐더러, 오히려 서로의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모국어의 간섭현상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 5) 5의 분석 (자음과 모음의 연접)

앞의 3의 경우와 같이 자음과 모음이 연접된 현상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 
- 5) 스페인어의 자음은 조음 위치에 따라 양순음, 순치음, 치간음, 치음, 치경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등으로 나뉜다. 그중 /n/은 대표적인 치경음 중의 하나로서, 그 뒤에 오는 자음의 위치에 따라 매우 유연하게 동화한다. (예: un vaso [umbáso], enfoque [emfóke], once [ónθe], concha [kón̄n̄t̄a], ángel [áŋxel]). 그러나 동화에는 조음의치의 동화만 있는 것은 아니고 조음방식의 동화도 있다. 예를 들어 “Es de Corea”라고 할 때 Es의 어말자음 /s/(무성마찰음)은 뒤따른 de의 어두자음 /d/(유성치음)과 연결되면서 유성음화한다(*é s̄decoréal*).
  - 6) 한국어와 스페인어 중 어느 일방에만 존재하지만 스페인어에 그와 유사한 음맥이 형성될 경우에는 한국어 규칙을 스페인어에 자연스럽게 전이 또는 간섭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유음화와 비음화 규칙을 들 수가 있다. 자음동화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김원필(2002)을 참고 요망.

앞 단어와 뒤 단어가 각각 단음절로 구성되어 매우 짧은 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 연음에 오류를 범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15%). 이로써 결합된 단어들의 음절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연음 실현이 용이해진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초보자들은 최대한 간결한 문장으로, 그리고 최소한의 말마디로 이어읽기 연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도 역시 비록 연음이 실현됐다 하더라도 뒤따른 동사 es에 강세가 주어지지 않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 바, 대부분의 학생들이 [xwánes]로 읽고 있다. 이는 마치 Juan의 복수 형태인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된다. 따라서 비록 단음절 단어이지만 동사라는 매우 중요한 문장 성분이기 때문에 강세가 주어지는 것이 원칙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강조해준다.

## 6) 6의 분석 (접속사의 연쇄)

여기서는 술어 형용사 두 개가 등위접속사 y에 의해 병렬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guapo y alto"). 첫 단어 끝의 모음 o와 접속사 y 그리고 마지막 단어 alto의 첫 모음 á가 서로 이어져 o-i-á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접속사 y가 어느 모음과 결합하는지가 관건이 된다. 학생들의 발음을 분석해 보면 65%가 [gwápo:i álto]로, 그리고 다른 35%가 [gwápo jálto](35%) 발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접속사를 앞 단어에 연결시키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인데, 아마도 이 접속사에 대응하는 한국어의 형태가 후치사의 성격을 띠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즉 우리말로 옮기면 "잘 생겼고 키도 크다"인데, 이때 앞의 성분에 연결어미(-고)가 붙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접속사를 앞 성분에 붙여 읽는다면 결합된 두 모음 /oi/는 하강이 중모음이 되어([gwápo:i álto]), 접속사는 반모음처럼 기능하게 되고 동시에 그 앞 모음 /o/는 열린 소리 [i]로 발음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스페인어 등 서양언어의 접속사는 대부분 전치사처럼 뒤 성분의 앞에 붙어 그것을 이끄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접속사 *y*는 뒤의 형용사 *alto*와 함께 결합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gwápo jáltol]로 발음하는 것이 옳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때 접속사는 뒤 모음 /o/와 결합하면서 상승이중모음을 이루게 되는 바 마땅히 반자음([j])으로 기능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 경우 세 개 모음이 동시에 결합될 수는 없는 것인가? Quilis & Fernández (1975, 150-151)의 설명에 의하면 스페인어의 모음연쇄(*sinalefa*)는 일반적으로 강모음 두 개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며, 이때 서로 결합된 모음들 (/a, e, o/)의 개구도를 기준으로 그 형태를 동일결합(*a-a*) 혹은 동급결합(*e-o*), 상승결합(*e-a*), 하강결합(*a-e*)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추가로 주목해야 할 사항은 강모음 세 개의 결합도 *sinalefa*의 한 현상으로 인정하되, 단 그 세 개 중 가운데는 반드시 가장 열린 모음(*vocal más abierta*)이 위치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예: *Vengo a empezar*). 따라서 6의 경우 외형적으로는 세 개 모음이 연결하고 있으나 약모음이 가운데 위치함으로써 삼중모음의 형태를 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두 술어를 동시에 병합하여 연음처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7) 7의 분석 (삼중모음 연쇄 및 축약)

이 경우는 형용사 술어 *inteligente* 앞에 부사 *muy*가 옴으로써 세 모음 연쇄구조(*u-í-i*)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그것들을 온전히 결합하여 발음한다면 [mwíintelixénte]가 될 것이다. *muy*의 경우 약모음 /u/와 /i/가 결합하여 상승이중모음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강세가 뒤 모음 /i/에 주어지는 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강세를 앞 모음 /u/에 두고 발음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매우 흔한 표현 “*Muy bien*”의 경우 *Múy bién*으로 발음하는 것이다. 따라서 *muy*는 [mwí]처럼 상승 형태로 발음해야 한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sup>7)</sup>

7) 부사 *muy*의 강세가 상승구조인지 하강구조인지에 대해서는 일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Real Academia Española (1973: 55)는 상승구조가 원칙적이고 일반적인 현

한편 *muy inteligente*의 경우 앞 단어의 어말모음(/i/)과 뒤 단어의 어두모음(/i/)이 동일 모음이라는 사실을 고려해볼 때, 이미 앞의 2에서 살펴본 것처럼 축약이 불가피해진다. 따라서 이 경우는 삼중모음이 아닌 이중모음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결국 [mwíntelixéntel]로 발음되어 전체적으로 5음절을 구성하게 된다. 그러나 학생들의 발음을 현장 조사해본 결과 모두가 이와 같은 축약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0%). 아마도 학생들에게는 동일 모음의 연쇄가 아직까지는 매우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다. 하지만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일정 기간만 연습한다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어의 리듬에 대한 개념을 이해한 후 그 리듬에 의존하여 발음을 훈련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sup>8)</sup>

앞에서 본 바와 같이 *muy inteligente*가 축약되어 [mwíntelixéntel]로 발음된다면 결국 *inteligente*나 *muy inteligente*나 공히 5음절로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학생들은 이 두 가지를 같은 리듬으로 연습할 수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inteligente*(in-te-li-xén-tel)의 경우 가운데에 위치한 제3음절(/li/)을 기준으로 각각 두 개 음절이 전후로 배치되어 있으며, 또한 앞뒤 양쪽에 속한 두 개의 음절들이 서로 비슷한 음소로 배열되어 있다([in-tel/én-tel]). 이처럼 어느 정도 완벽한 대칭 형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반복 리듬을 구사하여 발음을 연습한다면 보다 쉽고 빠르게 숙달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은 뒤에 놓인 두 개 음절 중에서 하나가 음절머리에 자음을 동반하고 있고(CVC) 또한 강세를 차지하고 있다(tónico)는 점에서 대칭적 균형

---

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주지하듯이 약모음끼리 결합된 이중모음은 기본적으로 상승이중모음으로 분류되며, 몇몇 특수한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하강이중모음의 구조를 띠게 된다. 가령 어원적 측면에서 볼 때 본래 그 음절이 분리되어 있었다거나(cúida), 혹은 본래 그 모음에 강세가 있었음을(Bernúy) 의식하는 경우가 그런 예일 것이다. 따라서 múy(<múito<múltum)도 그런 점에서는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Real Academia Española(1973: 55)에 제시된 바와 같이 그것은 현재는 스페인과 중남미의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방언현상이며, 더군다나 학생들에게는 너무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설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언급은 약하고자 한다.

8) 스페인어 리듬 학습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김원필(2004, 265-283)을 참조 요망.

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더구나 muy inteligente의 경우는 비록 강세가 양쪽에 고루 배분되어 있다 하더라도 음소 배열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더더욱 대칭적 형태를 기대하기가 어렵다([mwín-tel]/[xén-tel]). 이런 경우 우리는 보다 중후한 음절(sílaba grave)에 한 박자를 더 부여하면서 여섯 박자를 형성시키는 방법도 고려할만 하다고 본다. 사실 스페인어의 강세는 각각의 비중이 같지는 않을지라도 음높이(tono)와 음세기(intensidad) 그리고 음길이(duración)라는 3대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중 음길이 개념을 여기에 도입하여 적용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 즉 inteligente든 muy inteligente든 각 5음절 마디에서 주장세가 들어있는 제4음절에 한 박자를 잠정 추가한다면 전체적으로 6박자를 이루게 되고, 그리 되면 각각 [in-te-li-xé:n-tel], [mwín-te-li-xé:n-tel]로 발음하게 된다. 결국 [in-te-li]든 [mwín-te-li]든 [xé:n-tel]와 템포의 균형을 이루게 됨으로써, ‘따따따 따~따’의 형식으로 읽기를 반복하게 된다.

## 8) 8의 분석 (동종 모음의 확대 연쇄)

이 경우는 주어와 동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하나의 말마디 속에서 동종의 모음이 함께 이어져 발음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sup>9)</sup> 앞의 2에서 본 것처럼 동종의 모음이 이웃하여 결합된 경우에는 한 모음으로 통합되는데, 그 경우는 두 모음 다 무강세모음이어서 단모음(vocal breve)으로 처리되었지만, 이 경우는 그중 하나가 강세모음이기 때문에 하나의 장모음(vocal larga)으로 처리된다(líndá;ma). 이와 같이 한 무강세모음과 다른 강세모음이 서로 결합할 때는 마땅히 강세모음이 무강세모음을 통합하는데, 이때 장모음으로 변화하면서 무강세모음의 흔적을 남기는 것을 확대(amplificación) 연쇄라고 한다. 이 확대 연쇄의 경우 역시 2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확히 발음한 학생들이 전혀 없으므로 오류율 100%를 기록하고 있다.

9) 모음끼리이든 자음끼리이든 같은 음이 함께 이어져 발음되는 현상을 Quilis 등은 *concurrency*라고 칭한다. *concurrency*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Quilis & Fernández(1975, 146-148)를 참조.

### III. 요약 및 결론

우리는 앞에서 단어 간 경계에 배치된 음소들의 종류(자음과 모음)와 형태를 기준으로 그 결합의 유형을 구분하고, 특히 연음의 관점에서 그것들이 어떻게 발음돼야 하는지 그리고 동시에 학생들의 발음 실태는 어떠한지를 분석하였다. 비록 설문문의 내용이 매우 제한적이긴 하지만 어차피 매우 다양한 연음의 경우를 모두 제시하고 분석하기는 어려운 만큼,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경우를 제시하여 학생들의 일반적인 관심과 능력을 파악해보려고 시도하였고 또한 오류를 수정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찾아보려고 하였다.

앞에서 분석한 내용을 다음과 같은 <표 1>로 간단히 요약해 본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선 학생들이 의외로 모음연쇄(sinalefa), 특히 동종모음 연쇄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아직도 단어별로 읽는 습관에 젖어있음을 의미한다. 말마디를 형성하지 않은 채 단어별로만 읽거나 말하면 당연히 그 사이사이에 휴지가 생기게 되는데, 그 때문에 심하면 각 단어마다 끝을 올려 읽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 특히 관사와 명사를 나누어 읽으면서 관사에 상대적으로 더 높고 강한 어조를 두는 현상이 자주 발견되는데(lá anguila), 이와 같은 심각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학생들에게 모음의 연음현상(축약, 확대 등)을 주지시키고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음악의 붙임줄이나 이음줄을 연주하는 것과 거의 똑같은 이치이다.

<표 1>

유형	결합형태	대표적 음운현상	오류율
1	a-é	이중모음 연쇄	70%
2	a-a	동종모음 연쇄	100%
3	C-V	자음과 모음의 연결	20%
4	C-C	자음 간 연결 및 동화	50- 100%
5	C-V	자음과 모음의 연결	15%
6	V y V	접속사의 연쇄	65%
7	u-i	동종 모음의 축약	100%
8	a-á	동종모음의 확대 연쇄	100%

다음으로 유념해야 할 것은 자음끼리 만날 때 그로써 발생하는 동화현상을 반드시 숙지하고 연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웃하는 자음은 상호 조음상에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스페인어의 자음동화 규칙을 별도로 익혀 그것이 자연스레 몸에 배도록 많은 연습을 행해야 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모국어인 한국어의 동화현상이 스페인어에 간섭을 일으켜 오류를 빚어내기도 한다, 예를 들어 en la clase가 마치 el · la clase처럼 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한국어에서 너무도 흔한 유음동화현상(한라산>할라산)이 간섭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단어의 경계를 넘어 말마디(sirrema)를 이루게 되면 당연히 단어가 늘고 그에 따라 음절도 늘어나면서 박자가 불규칙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은 스페인어의 강세와 리듬을 자연스레 익히는 것이다. 리듬 학습은 외국어 학습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어떤 언어를 막론하고 연음을 잘 익혀야 하는 이유는 물론 발음을 보다 자연스럽고 빠르게 발음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발음 연습을 통해 궁극적으로 청취력이 향상된다는 것이다. 상대방 원어민이 발음하는 대로 따라 정확히 발음하기 위해서는 연음을 바탕으로 한 리듬 감각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연음의 구사는 문법의 이해도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연음은 문장 속 단어들의 통사적 구조를 이해했을 때 보다 원활히 실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sirrema를 비롯한 음성구문(Fonosintaxis) 학습에 보다 역점을 두고 학습할 필요가 있다.

사실 연음의 오류는 딱히 어느 한 가지의 문제라기보다는 복합적인 문제에서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이 아직은 통사적 원리에 미숙하여 문장 쓰기는 물론 읽기에도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문장 조직의 원리와 개념을 우선 이해시킨 뒤에 그것을 바탕으로 말마디 형성 훈련과 강세 및 억양 교육을 집중적으로 행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문법과 음성학은 밀접한 상관성이 있음을 교수자들이 먼저 인식하고 주의를 기울이면서 연음에

대한 효과적인 교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원필(2002), 「한국어와 스페인어의 자음동화현상 대조」, 서어서문연구, Vol. 22, 한국서어서문학회, pp. 17-35.
- 김원필(2004), 「노래를 통한 스페인어 리듬 학습 방안 연구」, 외국어교육, Vol. 11, 한국외국어교육학회, pp. 265-283.
- 김종남(1998), 「연음현상에 관한 연구」, 강남대 논문집, Vol. 32, 강남대학교, pp. 241-256.
- 한중임(2005), 『영어음성학과 발음지도』, 한국문화사.
- Alarcos Llorach, Emilio(1974), *Fonología española*, Madrid: Gredos.
- Beisbier, Beverly(1994), *Sounds great. Instructor's manual*, Boston: Heinle & Heinle publisher, A Division of Wadsworth, Inc.
- Bigorra, Sebastián Manuer(1974), “Sinalefa, elisión y licencia métrica,” *Revista Española de Lingüística*, Año No. 4, Fasc 2, pp. 293-300.
- Dubois, Jean, Giacomo, Mathée, et al.(1973), *Diccionario de lingüística*, 2a ed., Madrid: Alianza editorial.
- Grant, Linda(1993), *Well said*, Boston: Heinle & Heinle publishers, A Division of Wadsworth, Inc.
- Navarro Tomás, T.(1980), *Manual de pronunciación española*, Madrid: C.S.I.C.
- Quilis, Antonio y Fernández, Joseph(1975), *Curso de fonética y fonología españolas para estudiantes angloamericanos*, Madrid: C.S.I.C.
- Real Academia Española(1973), *Esbozo de una nueva gramática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Espasa-Calpe.

## 김 원 필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조선대학교 외국어대학 스페인어과  
wpkim@chosun.ac.kr

논문투고일: 2011년 9월 14일

심사완료일: 2011년 10월 14일

게재확정일: 2011년 10월 24일